

수봉도서관 2018년 「공공도서관, 콘텐츠로 나아가다」 세미나 강연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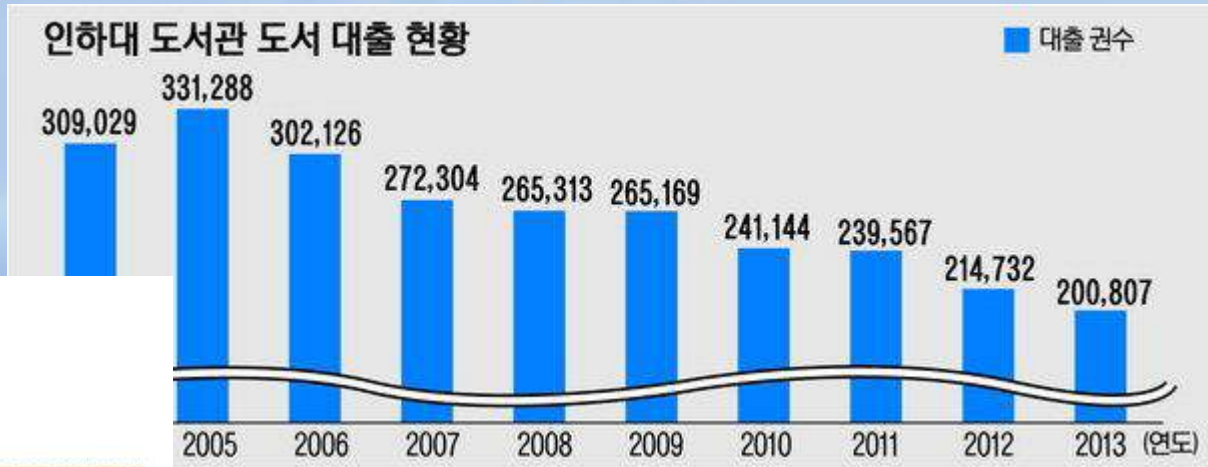


공공도서관과 창작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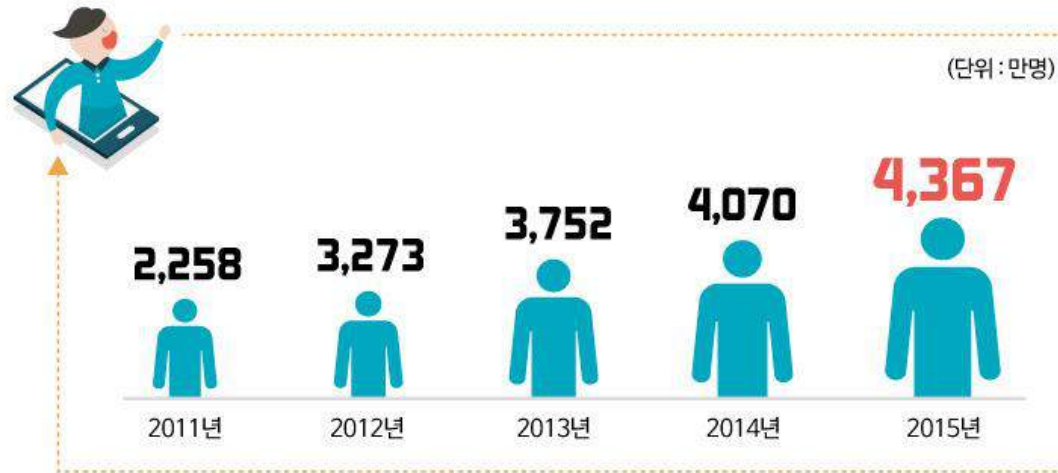
남영준 교수

2018. 12. 21.

세상의 변화 = MOBILE



스마트폰 가입자 변화 추이



경인일보 2014-10-29

콘텐츠 유통의 변화

› 콘텐츠 생산의 다변화

- 개인 중심과 플랫폼
- O2O, 니치마켓, 롱테일 강화를 통한 마이크로 콘텐츠 부상

› 콘텐츠 유통의 확대

- 시공간 제약을 탈피한 실시간 온라인 유통
-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
- 온라인 유통과 오프라인 융합 연결서비스

› 개인화 스토리 체험 중심의 니치 마켓

- 보편적 상업 콘텐츠와 더불어 개별 취향에 최적화된 니치 콘텐츠가 국내외 시장에서 다양한 매력을 기반으로 가치 확대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유통

- › 구글이나 아마존 등은 콘텐츠 생산보다 유통에 집중
-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콘텐츠는 사업자에 의해 배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가공, 공유, 재구성, 혼합하여 ‘유통하는 것’
 - 콘텐츠 생산의 주체 ⇨ 개인 중심
 - 유튜브와 유튜버
- › 네트워크 중심의 콘텐츠 소비형태
 - 특정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플랫폼에 집결한 이용자 간에 일정한 사회관계가 구축되어 콘텐츠 공유와 평가를 통한 집단적 큐레이션
 - 소수 취향 니치 콘텐츠의 경우 이용자 간 공감대 형성과 동질성 인식이 더 크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남

도서관의 위기, 도서관 불용론

› 도서관 이용자의 감소

- 사서선생님이 근무하는 도서관에서 이용자는 무엇을 바랄까?
 - › 공간일까 책일까?
- 사서의 서비스는 존재하는가? 아니.. 이용자 알고는 있나?
- 혹시 알려고 들지도 않는 것 아닐까?

› 도서관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 정보의 습득 : 인터넷으로 된다고 착각
 - › 지식, 데이터
- 열람실, 공간 : 기존지식과 부정합성
 - › 스타박스(커피만 음미하는가?) 공부는 조용한 곳에서.
- 도서관의 킬러콘텐츠(매력)는 어떤 것이 있을까?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사용하는 이용자
+
생산하는 이용자
=
창작 공간

서비스의
진화

디지털 호모 스크립투스의 등장



창작의 공간. 도서관.

› 사유의 창작 공간

- 기존의 정보자원을 이용자가 재해석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
 - › UGC User Generated Contents
 - › 유용한 정보자원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이용자가 창의적으로 전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
 - › UCC User Created Contents
 - › 이용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물질의 창작 공간

- › 메이커 스페이스
- › 무한상상실
- 하드웨어(혹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창작 행위

창작! 도서관과 물질의 창작



메이커 스페이스

- › 도서관을 생각하고 사유(思惟)하는 공간의 역할에서
- › 도서관을 사유하고 상상한 것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 제작하고 만들어 운용하는 결과까지 이용자를 도달시키는 장소
- › 도서관 자원의 대변혁
- › 전통적 자원 가치의 변화
 - 책과 사서, 공간
- › 공간과 도구
 - 사서 역할이 craft man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인가
 - TOOL이 분류표에서 3D프린터와 레이저 컷터, 밀링머신까지
 - 관내에서 정숙과 소음이 공존할 수 있을까?

THE PUBLIC LIBRARY OF CINCINNATI

- › Stations
- › Audio Recording Station
- › Digital Creation Stations
- › Espresso Book Machine ♥
- › Laser Cutter/Engraver
- › Media Conversion Stations
- › Mini MakerSpace
- › Photography and Video Stations
- › 3D Printer
- › Sewing Stations
- › Vinyl Printer/Cutter



[http:// THE PUBLIC LIBRARY OF CINCINNATI](http://THEPUBLICLIBRARYOF.CINCINNATI)

Espresso Book Machine

ON DEMAND BOOK

- › 유료서비스
- ›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출력
- › 200페이지 기준 제책에 5분 소요
- › from 5" to 10.5" in height and 4.5" to 8.25
- › 페이지수 : 40 – 830 page
- › 디지털자료에서 만져지는 책에 대한 요구를 수용



사유의 공간 이용자 창작콘텐츠

- › 이용자 창작콘텐츠의 정의 (나만의, 소수의, 팬덤)
 - '메이플스토리2'는 블록으로 구성된 3차원 세계를 바탕으로 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나만의 의상이나 집을 만들 수 있는 사용자제작콘텐츠(UGC) 시스템이 강점으로 꼽히며 전작을 즐긴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다양한 지역과 스토리도 다수 등장한다
- › UCC는 '생산'과 '창작', UGC는 '변형'과 '편집' '유통'
 -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직접 따라 하는 모습을 찍었다면 UCC,
 - 몇 장면을 잘라 편집했다면 UGC 출처: <https://cusee.net/2460896> [킬크로그]

원석 → 다이아몬드 (가치제고)

도서관 : 원석의 저장공간, 가공공간

- › 기술혁명 시대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요구는 문화콘텐츠를 창작하고 유통하고 향유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새로운 문화기술의 핵심
- ›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의 확산은 수직적 산업 영역 구분을 붕괴시키고, 네트워크에의 연결성이나 서비스 플랫폼의 고도화 등 이용자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생태계로 발전
- › 원석 raw data
 - 1) 정보 : 양질의 변형 대상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 2) 정보활용 교육 : 변형에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어디서 교육받을 것인가
 - 3) 시설 : 변형을 위한 도구와 공간은 어디에 있을까

원석 : 정보, 데이터, 지식

- › 도서관의 기본적 장서 정책
 - 양질의 엄선된 지식을 수집한다
 - 이용자에게 의미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 › 정보공유네트웍
 - 국내 정보 공유망
 - 해외 협력망
- › 정보공유와 활용 핵심
 - 활용에 따른 제한 요소의 완전한 제거
 - 저작권법

원석 감별사 : 사서의 역할

- › 눈에 띄지 않는 역할
 - 당연한 것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역할)
 - 네이버의 색인화(범주화) 작업
 - 자료를 구조화하는 역할
- › 좋은 자료를 축적하는 역할
 - 좋은 자료를 찾아주는 일
 - 질문을 이해하고 정교하게 찾아주는 일
 - 질문을 해결해주는 역할
- › 선제적 선도하는 공세적 정보서비스

정보활용과 정보활용 교육

› 전통적 정보활용 교육

- 도서관에 소장 중인 장서에 대한 안내 및 이용자 교육
- 도서관 외부자원과의 연계 활용 교육
 - › 정보탐색과 공정이용교육
- 디지털 디바이드의 해소

› 확장형 정보활용 교육

- 외부 자원 리에종 서비스
 - › 모든 사서가 밀링 머신 사용법을 가르쳐줄 능력을 갖추 필요 없음
 - › 밀링 머신 사용법을 잘 교육시켜줄 교육전문가를 초대하거나 자원봉사로 참여시킬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으로 충분함
 - › 전문가 네트워크의 확보 (인적자원범위의 확장)

백화점 : 도서관 변신은 무죄

› 전통적 도서관 서비스 공간

- 열람과 독서
- 지식을 습득하는 공간
- 자료중심
- 물리적 공간

› 미래지향적 도서관 서비스 공간

- 습득한 지식을 구현하는 시설
- 습득한 지식을 융합하는 시설
- 습득한 지식을 표출하는 도구와 시설
- 네트워크 중심
- 가상공간의 수용 : 플랫폼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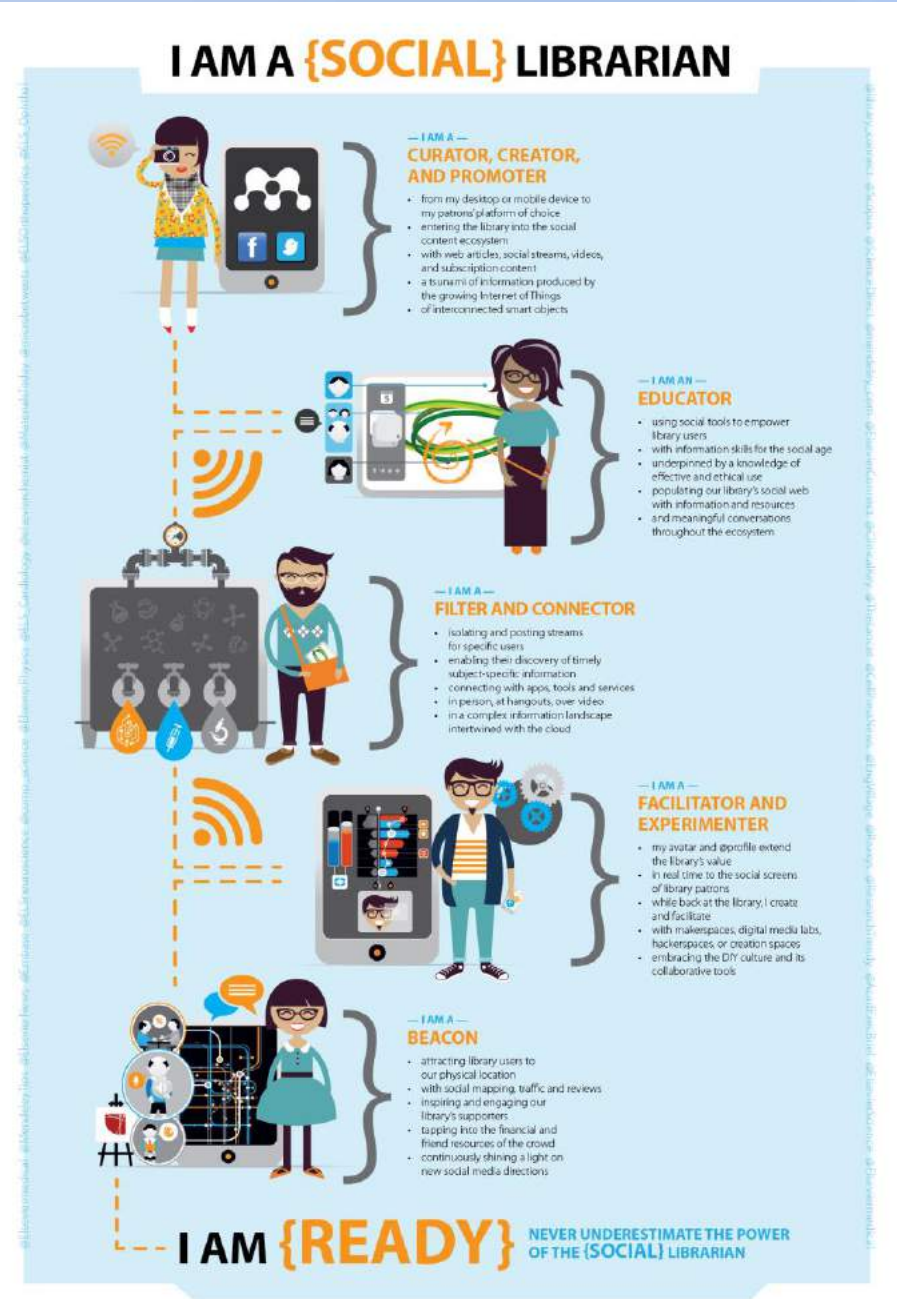
사서의 미래 역할 모델

▶ 퍼실리테이터

- 의사소통 지원
- 기존 체계를 연결 및 강화
- 자원의 전달과 개발
- '집단의 변화 창조자'

▶ 데이터 기반 창작자

- 파이선 전문가
- 큐레이터
- 문화프로그램 강연자
- 메이커스페이스까지



LibraryConnect
Partnering with the Library Community

Subscribe for free to the Library Connect Newsletter:
<http://libraryconnect.elsevier.com/subscribe>

Join the conversation @library_connect libraryconnect Content by Joe Murphy @libraryfuture

4차 산업혁명시대. 공공도서관의 자리

› 이용자를 위한 공공도서관

- 기술만으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 불가
- 콘텐츠 경쟁력의 원천과 핵심 속성은 '창작자'

› 콘텐츠 창작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

- '창조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혁신 행위자의 지속적 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로서 도서관
- 융합적·포괄적 콘텐츠 창작 공간으로서 도서관

› 지역 및 가상 공간의 네트워크 연결망으로서 공공도서관

- 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인 창작-유통-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구심점

›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 사서

정보만능시대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서비스란?

(마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있게 제공하는 것)

원하는 것(이용자 요구)과

필요한 것(사서의 판단)을 구분하여

콘텐츠를 갖게 해주는 것(도서관의 제공)

부끄 속 서점



COLLECT BOOK
&
VINTAGE

북극
서점

수선

010-9026-3963

경품의류전문

내
품
옷
수
선

477-2



DIVIDED
WE
STAND

스페이스
북극을
전서
강하
대관



북극서점



Shop







차가워지지 않기 위해 읽는다는 것

생활이 우리를 재촉할수록,
마음이 어두워질수록,
조그만 구석에서 은은히 빛나는
불빛은 더욱 소중한합니다.
추운 북극에서 불씨를 지켜나가듯
읽어나갑시다.

LITTLE PRESS

독립 출판물

세상에 멋진 균열을 내는,
우리의 심장을 저격할,
제멋대로 만든 작은 출판물들

창작부터 인쇄, 유통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출판물입니다.

내용과 형식에 무한한 자유가 있어 친근하고 톡톡 튀는 다양한 책들이 만들어집니다. 자본에서 독립되어 고유한 감성을 이 해받기 위해, 그저 재미로, 혹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좋아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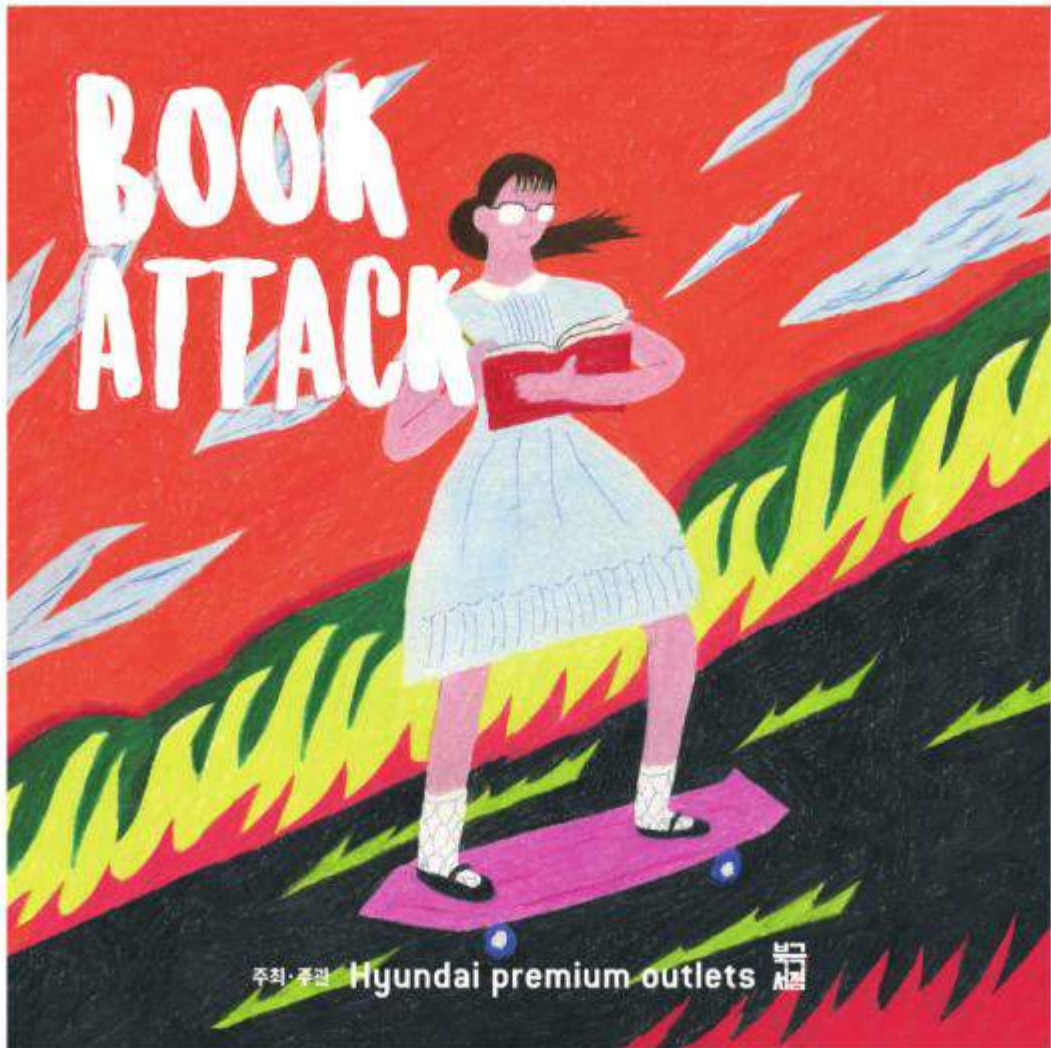
독립 서점

독립 출판물이 모여 있는 서점입니다.

책방 주인의 취향이 물씬 담긴 책들이 저마다의 존재감을 빛내며 놓여있습니다. 새롭고 섬세한 것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고 공연이나 강좌 등 멋진 문화 살롱으로서의 구실을 하기도 합니다.

아트북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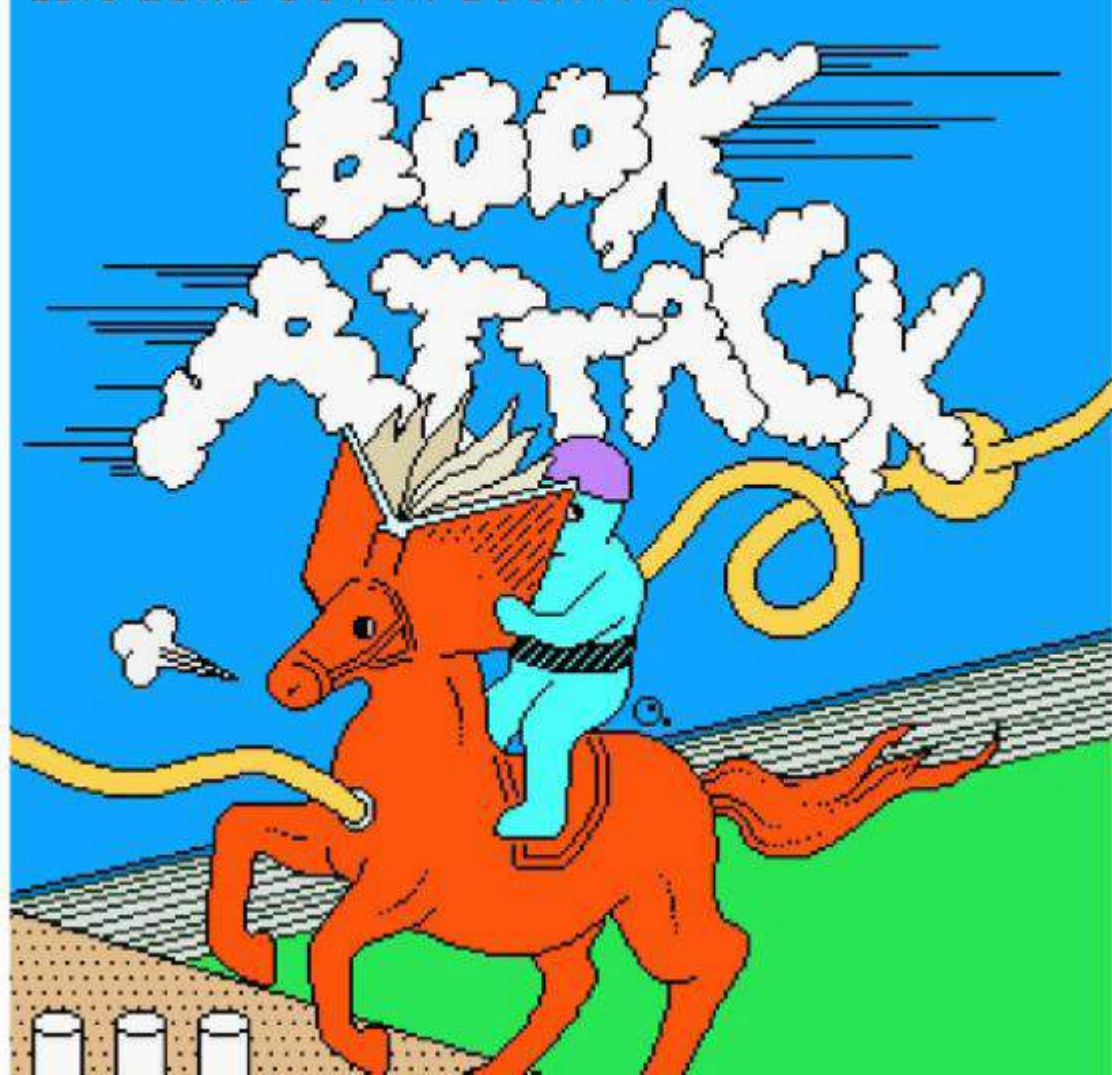
독립 출판 작가들이 모인 플라마켓입니다. 작가들이 자신의 책을 직접 소개하고 독자들에게 판매하는 독립출판 축제로 다양한 문화행사가 함께 열리기도 합니다. 독립 출판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BOOK ATTACK

주최·주관 Hyundai premium outl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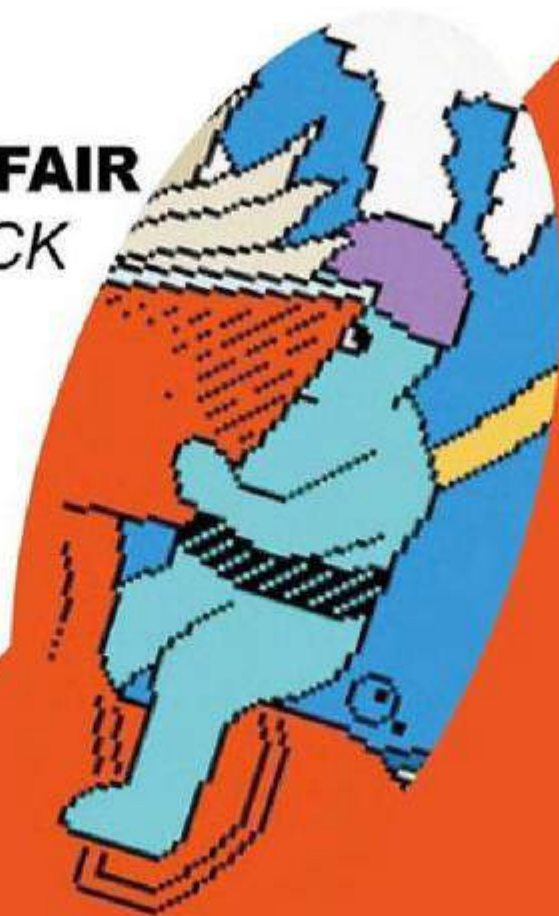
2018 SONG-DO ART BOOK FAIR



2018 SONG-DO ART BOOK FAIR BOOK ATTACK

LINE-UP

독립출판 작가
독립서점
디자인 스튜디오
출판사
핸드메이드
총 160팀



 **PLACE**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3층 하늘경원 (인천 1호선 테크노파크역 2번 출구)

TIME TABLE

9.15. SAT

12:00-18:00	아트북페어 BOOK ATTACK
18:00-19:00	북토크 : 이경미 감독 영화 <미쓰 홍당무> <비밀은 없다> 에세이 <잘돼가? 무엇이든>
19:00-20:00	공연 : 권나무 (싱어송라이터)

9.16. SUN

12:00-18:00	아트북페어 BOOK ATTACK
14:00-17:00	깜짝 사인회 : 이기주 작가 <언어의 온도>
18:00-19:00	공연 : 9(from 9와 숫자들)



'18 5 26

'18 5 26



2018

INCHON

ART BOOK FAIR

JUST THE WAY YOU ARE

18 5 28







귀여운 친구 가 있어

한국어교육원 지원

그렘린 Gremlin



봄은 산에 사는 '그렘린'의 활동으로 기계를 고장내거나 헛가뜨리기를 좋아한다.

만날 수 있는 곳

산악지역의 적남고를 찾아가보자. 비행기 위에서 놀고있는 그렘린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간혹 비행 중인 항공기의 날개에 새날의 깃기도 하므로 비행기를 찾을 때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좋다.

귀찮지만 주의할 점

그렘린은 기계를 다루는 데에 능숙해서 벤치만 프랑클린이기 때문에 비행할 때 그렘린의 도움을 받았다는 설이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그렘린을 무순계 여기는 몇몇 민간항공사는 비행장 장난을 치기도 한다. 활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활자를 하는 사람의 손가락을 다치게 하거나 자위기의 남수공은 수도꼭지를 바꿔놓는다.

TIP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다수의 영국 공군원이 그렘린 존재를 이야기하자, 심각성을 느낀 영국 국방부가 '그렘린 주의'라는 제국의 해뉴얼을 배포하기도 했다. 공전 후에는 언론을 통해 그렘린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정했다고 한다.

서울의 목욕탕



www.kookmin.com

저 청소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OR LUMBER #8

이 일을 하면 어쨌든
일년만 상상을 할것이다.



상당할하다 하면 커마기를 갖나



처음 시작했던 이라도 이 두가지
프롬이었는데



하디보니 남의 눈이 보였고



그렇다. 근음들은 많은 느낌



이 두가지 점점으로 인해 두릴 수
있었던 시간들을 살리지 못했다.



거기다 나중엔 일이 적을때까지 원인이
필라 내 여를 시간이 생겼고 그 강점을
유사했다.



첫째. 경제적 안정은 좋다

죽이나 배척조구나~



둘째. 직장상선르러는가 없다
재할 생애는 이상도



단순히 활동력이 부족했던 이유로 해
고어했다.



준비 생생함과 관련하여 깨달았음.



보통의 날을 기록합니다.

진솔하게 때로는 재치있게
소수 문화를 담아냅니다.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구의
간섭없이 해냅니다.

공감과 개성

이런 건 나라도 만들겠다

이정도면 나도 하겠다

공통점

책이 있다.

가끔 행사를 연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문화기획을 하고 있다.

차이점- 도서관

주제별로 아주 다양하고 많은 책이 있다.

일반 출판물이 많다.

다소 경직된 분위기이다.

공공성이 짙다.

대형 행사를 소화할 수 있는 공간과 재력이 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고 간다.

하루 방문객이 많다.

차이점-독립서점

주인의 취향에 따라 선별된 소수의 책들이 있다.(인문
예술, 소수문화 등)

독립출판물, 아트북이 많다.

자유롭다.

상업공간이지만 약간의 공공성이 있다.

작은 공연과 전시, 클래스 등 다양한 놀이 문화가 있음
데 돈을 못 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 독립문화를 좋아하는 사람, 창작
자들이 오고 간다.

SNS 홍보가 활발하다.

지향점

사람들이 좋은 책을 자주 접하게 하고 싶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주 오고 가는 것이 좋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일 때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된다

좋은 문화 행사를 제공하고 싶다

제안 / 독립서점 -> 도서관

독립출판 창작자들 소개하고 도서관 행사에 활력 주기
독립서점의 커뮤니티를 도서관으로 넓혀 지역 주민들
게 친근감 주기
우리 동네 도서관 탐방기 온라인 게시하기

제안/ 도서관 -> 독립서점

도서관에 독립 출판물 및 독립 서점의 큐레이팅이 담긴
신간 구비하기

도서관에서 독립 출판 클래스를 열어 새로운 독립 출판
작가 배출하기

우리 동네 독립서점 소개 오프라인 게시하기

제안/ 도서관+독립서점

독립서점 감성으로 도서관 내에 커뮤니티 공간을 꾸미고 프로그램 운영하기

독립서점과 함께 협력하여 행사 열기
(강의, 축제, 공연, 전시 교류 등)

독립서점 행사 포스터를 도서관에 함께 게시해주고 도서관 행사를 독립서점 SNS 계정으로 홍보해주기(자매 결연을 맺은 도서관과 독립서점, 횟수 제한)

보존과 활용을 넘어, 이제 창작으로

-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창작콘텐츠 제작 사업」 사례 -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이선미, 이은경

요약문

자기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과정을 즐기는 요즈음의 사람들에게 가파른 언덕 길을 올라와야 하는 수봉도서관을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 소속 사서들은 치열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수봉도서관에서만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수봉도서관의 창작 콘텐츠는 크게 이용자 참여형 콘텐츠와 사서 중심의 콘텐츠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용자 참여형 콘텐츠의 경우 창작 동화, 어린이서평콘텐츠, 청소년 콘텐츠, 도서관 독립출판콘텐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창작동화의 경우 시각장애인과 일반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촉각 도서와 점자라벨 도서로 제작하여 인천 송암점자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에 각각 기증 및 납본하여 해당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서평 콘텐츠의 경우 매월 어린이서평콘텐츠를 작성 리플릿 형태로 제작하여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팟캐스트, 매거진, 독립 영화 등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도서관의 청소년 콘텐츠를 더욱 더 풍부하게 축적하고 있는 중이다.

독립 출판과 결합한 청소년 및 일반 독립출판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본인의 책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책’ 과 ‘도서관’ 에 대한 흥미가 증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각의 창작콘텐츠는 제작뿐만 아니라 배포와 활용 역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각각의 콘텐츠는 관내 전시, 멀티미디어화, 모바일 플랫폼, 협력 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도서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봉도서관은 창작 콘텐츠 제작 사업을 통해 지역의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 수집, 활용 등을 통하여 콘텐츠 중심 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목 차

I. 추진배경

II. 수봉도서관 콘텐츠 창작

1. 이용자 참여형 콘텐츠 창작
2. 사서 중심의 콘텐츠 생산

III. 수봉도서관 창작콘텐츠의 형태에 따른 활용 및 배포

1. 활용
2. 배포

IV. 성과 및 향후 계획

I. 추진배경

길을 걷거나 밥을 먹거나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우리는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고 있다. SNS를 하거나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거나 관심 있는 콘텐츠를 보는 등 일상의 대부분을 핸드폰과 함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핸드폰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일까? 핸드폰은 이제 단순히 전화를 받거나 사진을 찍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기능보다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더 쉽고 편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출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쉬운 출판 플랫폼의 등장도 본인의 일상을 기록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책 출판이라는 것은 작가가 출판사와 계약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개인이 소량으로 내는 책의 출판은 자유롭지 못 하였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 세상은 변했다.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본인의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2009년 8월 개관한 수봉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지식을 넓히고 교양을 높일 뿐 아니라 생활이나 지역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고 활용하는 열린 공간으로써,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고자 약속하였으며, 지금껏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언덕에 위치하여 접근점이 좋지 못한 점은 미추홀구내 소규모 구립도서관이 많이 생길수록 도서관을 찾는 지역주민의 발걸음을 줄어들게 만들었다.

이에, 수봉도서관은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와 이용자의 요구를 민감하게 살피며 언덕을 올라오는 수고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찾게 하는 수봉도서관만의 특징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였으며 수봉도서관에서만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II. 수봉도서관 콘텐츠 창작

수봉도서관의 창작 콘텐츠는 크게 관내 동아리와 프로그램 참여자 중심의 이용자 참여형 콘텐츠와 사서가 도서관 사업과 연계하여 생산한 콘텐츠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이용자 참여형 콘텐츠 창작

가. 동화 콘텐츠 창작

1) 첫 번째 창작 동화, 촉각 동화

수봉도서관 2016년 인천 유일의 시각장애인도서관인 송암점자도서관과 협력하여 「알록달록 촉각도서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촉각 도서를 직접 만들어 일반인들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수봉도서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첫 번째 창작 동화를 제작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창작동화는 촉각 도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만큼 촉각 도서의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그 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촉각 도서 제작 과정

차시	주제	내용
1차시	촉각도서의 이해	촉각에 관련된 단어, 재질 이야기하기
2차시	입체그림 제작 준비	그림선정 및 밑그림 그리기
3차시	입체 촉각 그림 제작	인두로 우드락 흠파기, 닥죽으로 채워서 완성하기
4차시	촉각도서 주제 선정	도서 주제 및 재료 선정
5차시	촉각도서 제작	스토리 보드 완성 재료 재단 · 부착 · 바느질 등
6차시		
7차시		
8차시		
9차시		
10차시	점자라벨 부착	점자 라벨 제작 및 부착, 촉각도서 완성

창작동화의 주제는 ‘동물’로 『두근두근 동물원』, 『열 두띠 동물이야기』 2점의 촉각 도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두근두근 동물원』은 동물원에 놀러간 세 친구가 각 동물들의 특성을 살펴보는 동화로 13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 기술된 동물이나 사물에 어울리는 재질들로 촉각물을 구성하여 시각장애인이 동물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열 두띠 동물이야기』는 십이지신 동물과 그 동물이 뜻하는 시간대, 동물의 의미 등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으며 각 띠별 동물의 특성을 살린 촉각물로 구성하였다.

이 두 촉각도서는 주제 선정, 스토리보드 제작부터 재료 선정, 재단, 점자라벨 제작 및 완성까지 모두참여자들이 스스로 창작한 창작물이다. 특히 10차시로 구성되어 있는 제작 시간이

부족하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운영 시간 외에도 조별로 모여 밤을 세워가며 완성하는 등의 정성을 기울여 기존에 출판된 촉각도서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얻게 되었다.



[그림 1] 창작 촉각 동화

2) 두 번째 창작 동화, 멀티미디어 동화에서 점자라벨도서로

2016년 개설된 문화프로그램『낭독의 즐거움』을 통하여 그해 12월 낭독의 기본기를 갖춘 수봉도서관 동아리 “낭랑클럽”이 탄생하게 되었다. 낭랑클럽은 ‘낭랑한 목소리를 가진 구성원들이 낭독을 통해 서로 돕고 나누자’는 목표를 가지고 목소리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낭독콘텐츠 생산에 있어 저작권 문제로 출판 도서의 낭독이 어렵게 된 것은 돌이켜 보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낭독의 돌파구를 콘텐츠 개발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낭랑클럽 동아리 회원들은 먼저 본인들의 이야기로 콘텐츠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구성원 개인별로 에피소드를 공유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작가의 감수를 거친 이후 시나리오를 녹음 하는 과정으로 음성동화를 먼저 제작하게 되었다.

마침, 옥련여자고등학교 자율동아리 “청춘미술사”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스토리에 어울리는 그림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는 음성과 그림이 결합된 멀티미디어 동화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2] 멀티미디어동화 제작 과정

또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서 멈추지 않고 첫 번째 창작 동화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단행본 도서를 제작하여 점자라벨을 붙이고 기존에 녹음한 음성자료를 딸림자료 CD 로 제작하여 점자라벨도서로 만들게 되었다.

2018년 8월 현재 수봉도서관 낭랑클럽 순수 창작물은 도서 3권, 음성자료 3점, 멀티미디어 콘텐츠 4점의 제작이 완성되었으며, ‘일상의 쉽표’ 라는 제목의 5번째 시나리오의 삽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매년 3편의 창작물 제작을 목표로 진행되며, 향후 시나리오 및 아이템 공모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림 3] 점자라벨 도서 및 멀티미디어 동화

나. 어린이 도서서평 콘텐츠 : 어린이도서 리플릿

수봉도서관은 어린이 도서의 추천 및 지도, 이야기 낭독, 그림책 읽기 등의 다양한 어린이 도서 독서활동을 연구하며 운영하는 “이야기 모꼬지” 라는 독서동아리가 있다.

매월 주제를 정하여 모임을 진행 중이며 모임에서 나온 어린이 도서에 대한 감상평 공유와 토론을 진행하며 이 과정을 콘텐츠화 하여 리플릿으로 제작하고 있다.

리플릿은 총 4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면은 표지와 주제 소개, 2면은 감상평, 3면은 토론 과정에서 나온 다른 도서와 영화 등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4면은 다음 달 주제와 선정도서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매월 50부씩 제작되고 있으며 소진 시 추가 분을 조금 더 인쇄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이야기 모꼬지 창작자료

다. 청소년 콘텐츠

수봉도서관은 2017년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를 청소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주목하게 되었다.

청소년이 바라보는 지역 및 관심사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 대한 전문 강사의 교육 및 실습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청소년 콘텐츠를 얻을 수 있었다.

1) 청소년 팟캐스트 : 수봉도서관 청소년문화방송국(SBC : Subong Library Broadcasting Center)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여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팟캐스트 주제 선정, 시나리오 작성, 녹음, 편집 등 제작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습득하였으며 그 결과로 2017년 6건, 2018년 1건 총 7건의 팟캐스트를 직접 기획·생산 할 수 있었다.

〈표 2〉 청소년 팟캐스트 제작 목록

등록일	주제	내용	재생시간
2017. 5. 31.(수)	우리의 관심사. I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 유명드라마 촬영지 및 음악 소개	07:55
2017. 6. 28.(수)	우리의 관심사. II	· SBC 청소년 문화방송 외부활동 체험기 · 프로듀스 101 알아보기	11:15
2017. 7. 26.(수)	우리의 관심사 III	· SBC 문화방송 외부활동 체험기 · 청소년 관심사_이달의 키워드 · 우리들의 방학계획 소개	10:59
2017. 9. 27.(수)	우리의 관심사. IV 방학생활 우리 이야기	· 방학생활과 학교생활 이야기 · 수행평가에 대한 이야기 · SBC 드라마(교복)	13:21
2017.10.25.(수)	우리들의 관심사. V	· 십대가 생각하는 문화 공간 · 우리만의 문화놀이터 설계 ·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공간에 대한 수다	16:33
2017. 11. 29.(수)	우리들의 관심사. VI	· 스무 살의 우리를 상상하며 · 11월 현장체험 학습 후기 · 스무 살에 해보고 싶은 위시리스트 전화연결 · SBC 드라마 : 스무 살의 판타지아	18:36
2018.07.11.(수)	다시 돌아온 SBC 방송국	· 청소년 콘텐츠 제작자 참여 청소년 팟캐스트 · 대중음악 토론 : 음악을 듣는 청소년, 부르는 청소년 · 제20회 여성영화제 관람 및 팟캐스트 녹음 후기	22:01

7분대 방송으로 시작했던 청소년 팟캐스트는 회를 거듭할수록 재생시간이 늘어났으며 특히 2018년 제작한 팟캐스트는 처음 제작한 것에 비해 3배가 넘는 재생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며 단순히 시간이 늘어난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많은 내용들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등 갈수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청소년 문화매거진 : 알락(I like)

2017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면서 참여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문화매거진도 제작하였다.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취재 및 기사 작성, 사진촬영, 편집 등 일련의 과정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고 그 결과로 청소년 문화매거진 6부를 만들수 있게 되었다.

<표 3> 청소년 문화매거진 알락 제작 목록

발행일	주제	내용	페이지수
2017. 5.	알락매거진 년 누구냐	· 알락 매거진 소개	4 p.
2017. 6.	10시간 vs 2시간	· 공부 비법 등	4 p.
2017. 7.	필요	· 다양한 방식의 '필요' 안내	8 p.
2017. 9.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	· 청소년 권리	8 p.
2017.10	채우다	· 문화예술 콘텐츠 및 공간	8 p.
2017. 11	자유	· 스무 살에 하고 싶은 것	8 p.

또한 처음에는 4페이지로 시작한 매거진이었으나 3회차 이후로는 8페이지로 구성하여 독립 매거진으로써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각각의 매거진은 80~100부가 제작되었다.



[그림 4] 청소년 문화매거진 알락

3) 청소년 독립영화 : 영상자료

수봉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과 팟캐스트와 매거진 제작을 수행한 후 2018년 사업을 준비하면서 참여 학생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다음은 그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2017년에 배운 미디어 편집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유용해요, 쓸 데도 많고요. 요즘 애들은 수행평가도 그렇고 개인 소장용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만들거든요, 이런 게 다 편집이 필요한 거라서요. 근데 더 배우고 싶은데 기초부터 알려주는 곳도 없고... 유튜브로 겨우겨우 배우고는 있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힘들어요.”

- 2017 교육 평가 및 2018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사전 간담회 중(2018.01.30.)

위의 인터뷰 내용처럼 청소년들은 일상생활 속 많은 부분이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제작을 하면서도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운 경험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봉도서관은 청소년 대상 영상 촬영 및 편집, 시나리오 작법 등을 교육하는 “心수봉 프로젝트 : 청소년콘텐츠 제작자”를 기획·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화 제작 및 영상 촬영에 대한 체계적인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현재 참여 청소년들은 잃어버린 학원비를 찾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학원비” (가제)를 직접 기획하여 촬영하였으며, 제작된 청소년 독립영화는 『대한민국 청소년미디어대전』, 『대한민국청소년영상대전』에 출품하였다.



[그림 5] 청소년 영화 “학원비 ” (가제) 촬영 모습

라. 도서관 속 독립출판 콘텐츠

1) 청소년 독립출판물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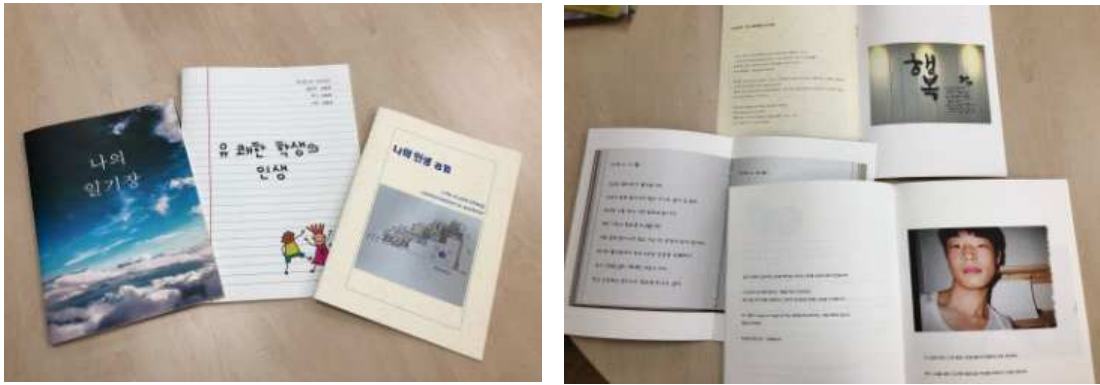
“心수봉 프로젝트 : 청소년 콘텐츠 제작자” 이외에 상대적으로 독서 생활과 다소 떨어져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책읽기의 즐거움을 일깨움과 동시에 긍정적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서도 콘텐츠 생산에 기반을 둔 운영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6] 청소년 독립출판물 제작 과정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독서지도, 청소년 심리(진로) 상담, 멘토(작가)와의 만남, 도서관 이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체험활동 ‘하나부터 열까지 내 책 만들기(독립출판물 제작)’ 활동의 일환으로 일

러스트 그리기, 사진 촬영 기초 실습, 수작업 제본 등의 교육을 통해 실제 참여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출판까지 참여한 독립출판물 5종 22책을 발행 할 수 있었다.



[그림 7] 청소년 독립 출판물

독립출판물 발행을 통해 참여 청소년들은 ‘책’ 자체에 대한 관심과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수봉도서관은 창작 콘텐츠와 잠재적 이용자를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

2) 일반 독립출판물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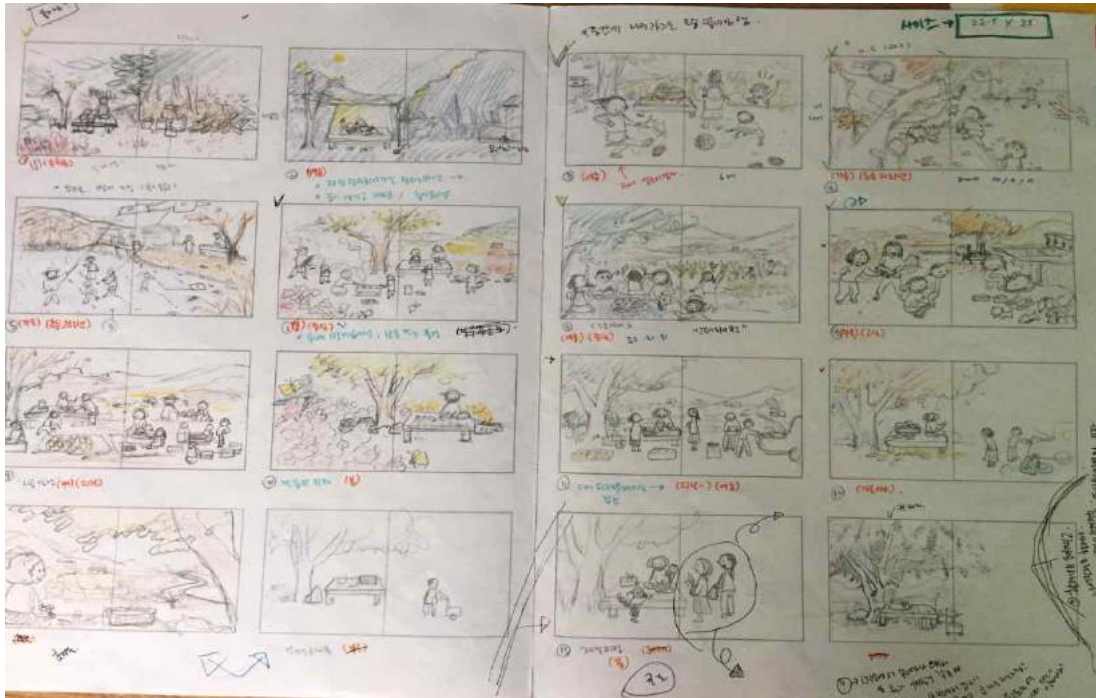
일반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역시 콘텐츠를 생산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하고 있다.

“나를 만나는 시간, 글에 나를 비추다”를 주제로 평소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으나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이용자를 대상으로 쓰기, 편집, 낭독, 출판의 분야를 직접 경험하게 하고 있다.

삶의 전반을 깊이 생각해 보고 나를 다듬어 표현하는 나를 비추는 글쓰기는 삶의 전반에 걸친 이해와 표현 기술을 습득하고 독립출판과 결합을 통해 개인별 그림에세이 출간을 목표로 20차시 수업을 진행하였다.

분야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전문 강연을 통한 통합 사유 능력을 배양하고 글쓰기와 함께 그림과 사진으로 다양성을 갖춘 표현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같은 활동은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전반에 대한 이해와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삶 속 교훈을 스스로 깨닫고 지역 주민과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해줄 것이다.

또한 도서 출간을 통해 창작의 욕구 해갈의 기회를 제공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스스로 제작에 참여하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인문학 배움의 기회 경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8] 갈 위의 인문학 “스토리 보드”

2. 사서 중심의 콘텐츠 생산

가. 수봉도서관 팟캐스트

수봉도서관은 도서관의 본래적 기능인 정보 및 정보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끊임 없이 고민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수봉도서관 팟캐스트 “LiBon”이다. “LiBon”은 Library와 On의 합성어로 “항상 켜져 있는 도서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사서 콘텐츠인 Book Cast와 청소년 콘텐츠인 Teen Cast로 구분하여 녹음, 편집, 제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Teen Cast의 경우 앞서 언급한 『心수봉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팟캐스트는 1편당 10-15분 내외로 녹음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 조사, 시나리오 작성, 녹음, 편집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 사서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표 4〉 수봉도서관 팟캐스트 제작 목록

연번	등록일	주제	내용
1	2016. 10.	맘캐스트 - 3형제 혹은 4형제	육아 정보, 육아 에피소드, 육아 관련 추천 도서 소개
2	2016. 10	인천버스노선 & 10월 행사	· 인천버스노선 변경 안내 · 여행 에피소드, 여행관련 추천도서 소개
3	2016. 11	미세스 요리왕	· 독감 예방 접종 안내 · 요리 에피소드 및 요리 관련 추천 도서 소개
4	2016. 11	재테크의 여왕	· 독감 예방 접종 안내 · 재테크 관련 추천 도서 소개
5	2016. 12.	제작 비하인드	·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및 새해 계획
6	2017. 1.25.(수)	신년계획	· 2017년 진행자 변경 안내 · 2017 팟캐스트 운영 계획 등
7	2017. 2. 22.(수)	다이어트	· 음식별 칼로리 · 간헐적 단식법 · 다이어트 관련 도서 소개
8	2017. 3. 15.(수)	영화이야기	· 영화 '핵소고지' 소개
9	2017. 3. 29.(수)	소설이 원작이 된 영화	· 소설 채식주의자(한강) 동명 영화 소개
10	2017. 4. 12.(수)	4차 산업혁명. I	· 도서관과 4차 산업혁명 이야기
11	2017. 4. 26.(수)	4차 산업혁명. II	· 직업 전망과 관련 도서 소개
12	2017. 5. 17.(수)	랜섬웨어	· 랜섬웨어 정의 및 예방법 소개
13	2017. 6. 24.(수)	기념일이야기	· 매월 14일을 준비하는 기념일 이야기
14	2017. 7 12.(수)	여행	· 여행의 시기 사전 준비물과 여행이야기 · 책소개: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 / 태원준
15	2017. 8. 9.(수)	기생충	· 기생충 이야기 · 책소개 : 서민의 기생충 콘서트/서민
16	2017. 8. 23.(수)	전염병	· 전염병을 소개한 다양한 이야기 · 책소개 : 28 / 정유정
17	2017. 9. 13.(수)	환절기 질환(감기)	· 호흡기를 통해 전달되는 질병 이야기 · 책소개 : 감기책/천미진
18	2017.10.11.(수)	예방접종	· 예방접종 종류와 방법, 기간, 대상 · 책소개 : 주사기가 온다 / 알랭 M.
19	2017.11.15.(수)	2017년 수봉도서관 소식	· 전국도서관대회 참가 소식 · 장애인서비스 수상소식 · 낭독동아리 활동 및 운영 내용 소개
20	2017. 12. 13.(수)	사서의 리본	· 직장동아리 운영 소개 · 사서별 추천도서 소개 · 참여방법 및 서가에서 찾는 방법 안내

21	2017. 12. 27.(수)	2017년 &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수봉도서관 마무리 · 2018년 수봉도서관 운영 내용 안내 · 그동안 변화한 수봉도서관의 이야기 소개
22	2018.03.14.(수)	2018년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이브 더 칠드런 협약 및 관련 사업 소개 · 수봉도서관 자원봉사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방법 안내
23	2018.03.27.(수)	바디버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정보서비스 특강 ‘바디버튼’ 안내 · 건강정보 + 건강 계단 제작 안내 · 1분 건강정보 “콜레스테롤”
24	2018.04.11.(수)	봄철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철 건강관리 방법 안내 · 책소개 : 미나리를 드셔야겠습니다 · 1분 건강정보 : 주꾸미
25	2018.04.25.(수)	양파와 마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역력은 UP 시키고 독소는 Down, 시키는 양파, · 4월~5월의 도서관 행사 안내 · 1분 건강정보 : 마늘
26	2018.05.09.(수)	올바른 베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적을 일으키는 베개의 힘 · 1분 건강정보: 고관절
27	2018.05.23.(수)	발가락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가락 건강 이야기 · 책 소개 : 발가락이 내 몸을 고친다 · 1분 건강정보 : 피로 골절
28	2018.06.13.(수)	눈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술 없이 회복하는 시력 및 눈 건강 운동법 소개 · 책소개 : 특종! 안과의사 눈 운동 · 1분 건강정보 :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29	2018.06.27.(수)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로 10년 더 건강하게 사는 법 · 1분 건강정보 : 프리프롬

2016년 운영 초기에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운영하였다면 2017년 하반기 이후에는 수봉도서관이 특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건강” 을 주제로 하여 관련 도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의료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 정보 콘텐츠를 활용하여 좀 더 쉽게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사서의 책 편지 : 사서의 리본

수봉도서관은 2017년 직원들로 구성된 직장독서동아리 ‘사서의 리본’ 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월 선정된 주제에 대해 개인별로 도서를 선정하고, 선정 도서에 대한 소개와 토론 시간을 거친 후 해당 도서를 왜 추천하는지에 대한 책 편지를 작성하고 있다. 보통 간략한 서평 형식으로 작성되며 해당 도서 면지에 붙여 이용자가 어떤 책인지 보기 위해 책장을 넘길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어 책을 소개하는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간략 서평 콘텐츠를 통해 책에 대해 알고 있는 사서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 9] 사서의 책 편지 전시

다. 건강정보 콘텐츠

2016년 수봉도서관은 “건강” 을 주제로 한 특화서비스에 매진하려 노력 중이며 그 일환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건강정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인천미추홀보건소와 연계하여 사전 지역 분석을 진행하였고 인천의료원과 MOU체결을 통해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물로 2017년 12월에 건강정보 콘텐츠로 구성된 5종 225부의 자료집을 제작하였다.

<표 5> 건강정보 콘텐츠 자료집 내용

구분	주제	제작권수	구성
1	면역성 질환	45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질환의 정의 · 치료 · 원인 · 주의사항 · 증상 · 관련 도서 및 비도서 · 진단 · 관련 기사 정보
2	성인질환	45부	
3	소화기질환	45부	
4	심혈관질환	45부	
5	호흡기질환	45부	

또한, 온라인 정보콘텐츠 「건강정보+」 2018년 4월 신설 운영하고 있다. 수봉도서관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게시판을 통해 열린누리(종합자료실) 『건강정보+』 서가에 비치된 345종의 도서에 대한 세부 내용 및 키워드, 서평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Ⅲ. 수봉도서관 창작콘텐츠의 형태에 따른 활용 및 배포

1. 활용

가. 도서

수봉도서관은 2016년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창작촉각점자도서 2종을 제작하였으며, 2017년~2018년 현재 3종의 창작동화 27권을 점자라벨도서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한 도서는 2017년 인천 송암점자도서관에 창작촉각점자도서 2종 2권, 창작점자라벨도서 3종 6권을 기증하여 지역 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고 있다.

2018년에도 점자라벨도서로 제작한 창작동화 3종 6권을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납본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서비스 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2017년 제작된 도서 재발행을 통하여 ISBN 번호를 부여받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수봉도서관은 제작도서 중 일부를 도서관 전시에도 활용하고 있다. 수봉도서관 문화누리 내에서 2018년 1년 동안 창작점자라벨도서와 관련 음성자료, 동영상, 동화원화 등을 도서관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관람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창작동화를 제작하는데 크게 기여한 수봉도서관 낭독동아리 “낭랑클럽”에서는 도서 속 콘텐츠들을 외부 낭독 공연으로까지 이어가는 등 창작 도서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10] 도서 콘텐츠 활용 모습

건강정보콘텐츠로 제작한 도서 5종 225부 중 일부는 관내 비치될 통해 이용자에게 배포하고 일부는 건강 프로그램 진행시 관련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나. 디지털파일 : 음성 및 동영상 파일

다양한 형태의 창작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음성파일 일 것이다. 수봉도서관은 2016년부터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정기적으로 월 2회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수봉도서관 건강정보 특화서비스와 관련하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정보와 책 소개 위주의 콘텐츠로 운영하고 있다. 팟캐스트 제작 시나리오는 수봉도서관 직원들이 직접 작성하고 있으며 보다 정제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수봉도서관은 2017년부터 미디어 제작을 주제로 한 청소년 대상 인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SBC : Subong Library Broadcasting Center : 수봉도서관 청소년문화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음성 콘텐츠를 수봉도서관 팟캐스트에 업로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봉도서관은 창작 동화를 제작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점자라벨 뿐만 아니라 점자를 읽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관내 낭독동아리와 음성 파일을 제작하게 되었다. 음성파일은 현재 창작점자라벨 도서 3권에 대한 3건의 파일과 아직 도서 제작전인 콘텐츠 1개 총 4개의 파일을 제작하였다. 기존 3건의 음성파일은 CD로도 제작하여 각 도서에 음성자료로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휴먼음성자료로 등록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그림 11] 창작동화 음성콘텐츠의 활용

또한 상시 전시가 진행되는 문화누리에는 도서뿐만 아니라 음성자료와 더불어 영상동화를 들을 수 있는 별도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여 관심 있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보고 들으며 도서관에서 생산한 콘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리플릿

수봉도서관은 현재 8개의 독서동아리를 운영 중이며 앞서 언급한 ‘낭랑클럽’ 처럼 적극적인 창작 활동은 아니지만 어린이 관련 도서를 읽고 토론을 거쳐 그 결과를 리플릿 형태로 작성하는 활동도 진행 이다. 처음에는 일반 동아리처럼 자체적으로 토론하는 것에서 그쳤으나 수봉도서관 사서가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쳐 리플릿 형태의 자료가 나오게 되었다. 이 리플릿 자료는 동아리 운영이 이루어지는 월마다 제작하여 어린이 자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도서관에 홍보물 게시대에 비치하고 있다.

2. 배포

가. 모바일 플랫폼 활용

수봉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온라인 접근점을 오랫동안 홈페이지만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바일 시대를 맞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수봉도서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콘텐츠들을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예산을 투입하여 별도의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우리의 콘텐츠를 담아 도서관 이용자 혹은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수봉도서관은 현재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며 모바일 접근이 자유로운 블로그, 페이스북, 팟빵을 주요 모바일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한 콘텐츠들을 배포하고 있다.

블로그는 현재 도서관 행사를 자유롭게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을 통하여 창작 영상동화, 팟캐스트, 사서의 리본(서평) 등을 주기적으로 업로드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봉도서관이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봉도서관 팟캐스트는 한 달에 2번 팟빵을 통하여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으며 건강정보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와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지역 소개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협력기관 활용

수봉도서관은 지난 4월 창작동화 음성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팟캐스트실을 이용하게 되었다. 창작동화에 대한 음성콘텐츠를 낭독 교육을 받은 도서관 이용자가 직접 녹음한다는 것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측은 큰 관심을 보였으며 실제 녹음이 끝난 이후에는 창작동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를 원하였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미추홀구(舊 남구)내 마을 방송을 제작 및 배포하고 있었으나 지역내 콘텐츠 부족으로 방송 편성에 있어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수봉도서관은 미추홀구내 위치하고 있으며 창작동화를 지은 동아리 낭랑클럽은 미추홀구내 거주하는 수봉도서관 이용자 즉 지역주민이 만든 것이었고 또한 직접 음성자료까지 녹음하니 센터 쪽에서 찾는 지역콘텐츠에 적합한 것이었다. 이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수봉도서관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업무 협력을 하게 되었다.

수봉도서관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팟캐스트실을 사용하면서 센터 음성 녹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녹음 시 발생하는 잡음을 최소화하여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음질을 얻게 되었다.

수봉도서관에서 센터의 도움을 받아 완성도를 높인 음성자료를 바탕으로 한 영상동화는 “주안미디어 TV : 배리어프리 창작 TV 동화” 라는 제목으로 남인천 방송 CH 4를 통해 6월 11일 ~ 6월 24일까지 오전 10시 30분에 정기적으로 송출하였다.

〈표 6〉 NIB 방송 송출 목록

동화명	재생시간	동화명	재생시간
나는 소리입니다.	1분 57초	말 없는 사랑	6분 5초
말쟁쟁이 내 동생	5분 41초	아들, 고마워	6분 21초

이를 통해 미추홀구를 비롯해서 인천 지역에서 남인천방송에 가입한 인천시민들에게 창작 영상동화가 배포되어 다수의 인천시민에게 수봉도서관의 창작콘텐츠를 소개할 수 있었다.

IV. 성과 및 향후 계획

수봉도서관은 그동안 많은 도서관들이 수행하고 있던 전통적인 도서관으로써의 기능뿐만 아니라 창작의 기능까지 더해 지역의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 “창작” 하는 자료의 생산에 집중하여 다양한 산출물을 내고 여러 채널을 통해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수봉도서관은 이제 내부의 창작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보다 많은 창작콘텐츠를 생산·수집하여 콘텐츠 중심 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먼저 내부의 창작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수집, 보존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자 한다.

일상의 기록이 역사가 되는 콘텐츠 수집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다.

지역의 독립출판물을 취급하는 서점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수의 독립출판물들을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독립출판물의 특성상 발행부수가 작고 쇠를 거듭하여 발행되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발행 시기를 지나면 다시 구하기 어려우므로 자료 수집에 있어 무엇보다 시기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출판물보다 개인의 일상을 더 깊게 다루고 있으므로 도서관의 마을 역사 기록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출판 지원’ 사업을 통해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나 출판 및 배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무명작가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생애 첫 책을 도서관에서 출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수봉도서관은 올해 ISBN 발행자 번호를 부여받았으며 ISBN을 발급받은 도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ISBN번호를 부여받은 도서를 갖게 되는 것이며 수봉도서관은 잠재적 작가인 참여자들의 초판 도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의 향토자료로도 기능하게 될 것이다.

소재 및 아이디어를 포함한 지속적인 이야기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 속 더 깊은 생활 스토리를 담아 지역 내 콘텐츠 중심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영희, 강정아, 박찬희, 박현주, 2016. 「향토문화콘텐츠와 도서관」. 서울: 청람.
이소이 요시미쓰, 2015. 「동네도서관이 세상을 바꾼다」. 진주: 펄북스
이대희, 촛불이 활짝 필 때, 독립 출판도 떴다. 프레시안. [online] [cited 2016. 11. 3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4826&ref=nav_search#09T0>